

[붙임] 에세이 작성 서식

제 목	위기는 기회로, 갈등은 발전으로		
소속 대학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 번	2015	이 름	김**
이메일		연락처	

독일의 발달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인간 일생에 거친 발달의 과정을 총 여덟 단계로 구분한 이론을 내었다.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태어나서부터 영아기,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 노년기까지 개인의 인간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이때 각 생애발달주기마다 인간은 각 시기가 갖는 고유한 심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시련을 맞는다. 시련이 내리는 과제를 잘 수행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발달과업에 패널티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20대란 존재는 매우 흥미로운 위치에 있다. 청소년기의 막바지에 걸쳐있음과 동시에 성인기의 초기에 매달려있는 꼴이다. 생애발달 6단계에 속하는 성인기의 발달과업은 '친밀감 vs 고립감'이다. 이제 청소년은 학교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온다. 모든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고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에릭슨은 이 시기에 타인과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면 친밀감이라는 보상을, 그렇지 못하면 고립감이라는 패널티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인생의 선배쯤 되는 기성세대 중에서도 이 시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현 20대가 기존 세대들과 다른 점이 있다. 예기치 못한 재앙, 팬데믹(pandemic)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 전 세계에 걸쳐 대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폐쇄되었다. 그에 따라 국제 교류와 연관된 많은 직종들이 타격을 받았으며 적지 않은 회사들이 매출, 금융 난에 허덕였다. 피해는 곧 노동자들에게 옮겨갔다. 대거 실직하고 실업률이 증가했다. 하지만 모두가 일자리를 잃어버리진 않았다. 사회 권력을 쥐고 있는 4050세대들은 남아있는 채 2030세대가 희생되었다. 특히 사회계층 사다리에 머물러있거나 이제 막 가족을 꾸린 30대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20대에게 30대의 몰락은 적나라하게 비춰졌고 곧 집단공포와 분노로 다가왔다.

20대들은 어려서부터 비슷한 교육을 받아왔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자리를 잡는 게 성공이라고 배워왔다. 기성세대는 그렇게 가르쳤으며 신세대는 그렇게 학습했다. 하지만 팬데믹은 20대의 믿는 발등을 찍어버렸다. 30대가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도 얻는 소득이 부동산 시세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봐버렸기 때문이다. 20대는 30대들이 일찍 집을 산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로 희비가 갈리는 현상에 분노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자신들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다른 세대의 20대와 견줄 수 없는 현 20대의 강점이라면 자기파악(Self-assessment)이 빠르다는 것이다. MZ세대라 불리는 그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4차 산업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뤄 타 세대를 압도했다. 이러한 강점은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더욱 돋보였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본가의 전유물로만 알았던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암호화폐를 사들여 부를 축적했다. '가상화폐 앱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앱 이용자 수의 30%는 20대가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토어 창업에 뛰어든 이들은 온라인 시장을 점령했다. 코로나 전후로 20대 신규 창업자 수는 70% 이상 늘었다.

더 이상 노동만으로 살아남는다는 감언이설(甘言利說)은 통하지 않는다. 전례 없던 4차 산업 시장의 확장에 기성세대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거침없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투자 방식은 4050세대들에게 매우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기성세대의 배신에 느낀 분노와 절망은 곧 기회의 개척을 일궈냈다. 개인주의가 발달된 20대에게 더 이상 '관례'는 안중에도 없는 장애물이다. 예전처럼 직장선배가 퇴근할 때까지 회사에 남아있거나, 회식에 강제 참석하고 회사에 충성하는 건 그들에게 '없던 문화'다.

한편으로 걱정되는 이유는 그 혈기왕성한 행동력이 종종 제 살을 깎아먹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뿌려놓은 젠더갈등 떡밥에 힘을 합해야 할 20대가 서로에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시대가 어떻든 항상 갈등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존재했는데 유독 20대는 곧잘 희생당하는 편이다. 20대 남자와 여자는 서로 혐오하고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언어폭행을 주고 받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내부분열을 일으키고 국가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대가 가장 성별 불평등을 느낀다고 답했다. 우리사회가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74%, 우리사회가 남성에게 불리하다고 응답한 남성이 51%에 달했다.

한 가지 20대를 간과했던 것은 그동안 그저 그들을 N포 세대의 꼬리에 걸려있는 세대로 인지했다는 점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20대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고유의 강점을 살려서 그들만의 독창적인 길을 만들어나갔고 보란 듯이 어른들

앞에 승리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과들도 사회적 갈등이 자리 잡는 한 절대 이룰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자. 정말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가?

오히려 현실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이야기하는 심한 젠더갈등을 찾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생각해보면 가부장제의 혜택을 받은 건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일 뿐 20대 남성이 아니다. 오히려 젠더 감수성은 20대 남성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여론 형성에 있다. 정치인의 대부분은 기성세대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미 기성세대들은 부와 명예를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안락한 노후설계다. 20대의 투표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소리는 옛말이다. 제19대 대선 20대의 투표율은 76.1%로 74.9%인 40대의 투표율을 앞질렀다. 성 평등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이 해온 행보만 봐도 정치인들이 젠더갈등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굶어 부스럼이라 했던가, 오히려 20대를 싸움에 부추겨 문제를 해결할 때 쓸 힘을 분노에 소모하도록 유도했다. 물론 스스로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들이 양쪽에 있으나 극과 극은 항상 통하는 법이다.

각 정당들은 20대를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청년정당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이미 정치에 관심이 많은 20대들은 넘쳐난다. 우리나라엔 사회의 역기능을 바로잡을 고급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아직 삼권(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은 20대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혐오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강화시키고 언론과 악한 정치인들이 갈등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차별적인 언행만 해도 즉각적으로 경찰이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물론 법의 강화가 현실뿐만 아니라 20대가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세계까지 닿아야 할 것이다.

20대는 속지 말아야 한다. 갈등을 유발해서 타인을 뜯어먹고 사는 무리와 혐오를 조장하는 권력자들의 음계(陰計)에 넘어가선 안 된다. 20대는 가축이 아닌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시민들이 그러했듯이 공부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무엇보다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극복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20대들 스스로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

2021.05.07.